

정유업계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태어나길

석유협회보가 3월 26일을 맞아 20살 성년이 됐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꽃이나 나무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선 거친 비바람, 태풍에 휘어질지언정 뿌리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어린 아이 역시 세상에 얼굴을 내민 후 영금영금 기고, 넘어지고, 걷고, 뛰는 단계를 거쳐 사회에 필요한 성인될 때까지 7전8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얼굴에, 이름 세 글자에 부끄럽지 않은 개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부모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정도인데 잡지, 전문지, 협회보 같은 인쇄물들이 맥을 이어간다는 것은 이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혹자는 그들을 아끼며 만들어가는 집필자들과 독자들이 있는데 그게 그리 힘든 일일까?라고 의문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한달이면 수백, 수천 종류씩 쏟아져 나오는 일간지, 주간지, 잡지, 사보, 협회지 등의 인쇄물에서 독자의 눈에 띄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어디 그 뿐인가.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최근에 가세한 웹진, 전자북까지 더하면 정보창고를 차지하며 독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정보생산자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신문이나 잡지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2~3년의 기간을 두고 본다. 그 기간내 매체 성격에 맞는 아이템과 기사로 독자의 시선을 끌



원종숙
〈현대정유 홍보팀〉

수 있다면 망할 위험이 적다는 게 정설 아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20년 동안 석유업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진 석유협회보의 생일은 축하하고 축하할 일이다.

석유협회보가 지금까지 석유산업에 관계하는 사람들 사이에 권위있는 석유전문지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협회보라는 특수성이 분명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20년 동안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보살펴온 발행인 이하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한다.

성인이 되면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좀더 확실한 목표의식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연유에서 석유협회보를 사랑하

는 독자들은 20살을 맞은 협회보의 행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내 석유산업은 앞으로 점점더 다각화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업체와 수입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공정위에서는 복수플사인제를 9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환율은 1,350원 이상을 육박하며 치솟고 산유국의 유가방어 정책도 지속되고 있다. 석유가를 조정할때마다 우리 정유사들은 가격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경쟁을 벌이지만 한편에선 정유사들의 손익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산유국 원유가가 올라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언론, 시민의 비판에 눈치까지 보며 유가를 결정해야 한다. 가히 첩첩산중이다.

이같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경우 국내 석유산업 및 석유유관업계 관계자들이 석유협회보에 거는 기대는 당연히 커질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간의 지식과 경험, 지혜를 모으며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의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또 석유산업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 전망기사를 원하는 관계자들도 늘어날 것이다. 협회보가 이같은 독자들의 목마름을 완전히 충족해줄 수 있는 협회보로 우뚝 서길 바란다.

최근 접한 한 강의에서 강연자는 21세기가 스피드와 창조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협회보나 사보를 만들에 있어 디지털, 첨단화 등의 환경변화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변해가는 정보사회에 발맞추지 못하거나 창조적인 기사가 없다면 인쇄물의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얼마전 석유협회보를 보기 위해 석유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전자협회보가 스피드면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홈페이지내 전자협회보 중 가장 최근호가 2000년 9, 10월호이었고 이후에 발간된 2권의 책은 보이지 않았다.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좋은 책이 나와도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고 제대로 읽혀지지 못한다면 그 책은 정보력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인터넷시대에 수많은 웹진이나 신문, 잡지들은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정보를 주고 받으며 온라인 독자들을 붙잡고 있다. 석유협회보도 오프라인으로 협회보를 받아보는 석유업계 관계자들만이 정보수요자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좀더 많은 대학생,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자협회보에도 관심을 쏟아줬으면 좋겠다.

또 누구나 독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쉽고 평이한 글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반적으로 신문은 초등학교 5학년이 읽어도 이해가 될 만한 수준으로 기사를 작성한다. 쉽게 쓰면서도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협회보의 기사들은 너무 논문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지라는 성격을 살리면서 쉬운 글을 요구한다는 게 무리일 수도 있겠으나 일반사람들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만한 내용으로 재단장했으면 좋겠다. 표지사진 역시 친편일률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도와 디자인을 시도해야 할 것 같다.

석유협회보가 꽃피우게 20살 입성에 성공한 것을 바탕으로 조금더 분발하면 30살, 40살 이상까지도 발전하는 협회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연륜을 쌓아갈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이 엇보이는 책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협회보를 사랑하는 독자들이 현재 이상의 관심과 사랑을 계속 쏟을 수 있도록 국내외 석유업계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좀더 발빠르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길 바랄 뿐이다. 다시 한번 20주년 창간을 축하한다.